

성인기 애착유형, 부정적 인지 왜곡 및 우울수준간의 관계

정 연 옥[†]

이 민 규

아주대심리학과

본 연구는 애착유형과 Beck의 부정적 인지삼체(Cognitive triad) 및 우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대학생 265명에게 성인애착 관계질문지를 실시하여 애착유형을 Bartholomew의 자기 및 타인 모델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다. 안정형, 공포형, 집착형, 및 무시형에 속한 학생들은 각각 32.8%, 6.8%, 17.2% 및 34.7%였다. 연구결과, 공포형 애착집단(자기상 부정적, 타인상 부정적)은 안정형 애착집단(자기상 긍정적, 타인상 긍정적)에 비해 자기, 타인 및 외부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지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수준도 높았다. 집착형 애착집단(자기상 부정적, 타인상 긍정적)은 무시형 애착집단(자기상 긍정적, 타인상 부정적)에 비해 자신,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 왜곡이 심했고, 우울수준도 높았다. 그러나 타인 및 외부세계에 대하여 보다 더 긍정적인 인지를 보이지는 않았다. Bartholomew의 자기 및 타인모델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주요어 : 애착 유형, Bartholomew의 자기 및 타인 모델, 부정적 인지왜곡, 우울

[†] 교신저자 : 정 연 옥,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442-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산 5
전화 : 031-219-1963, Fax : 031-219-1729, E-mail : yoc141@ajou.ac.kr

최근 임상적 장애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발달적 조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모델 중의 하나가 애착이론이다(Carmen & Hurman, 1996). 애착이론은 Bowlby(1969)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애착이란 유아가 주 양육자와 친밀한 애정적 결속을 맺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이자 일종의 동기이다. 그는 애착 체계를 행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행동체계로서 개념화했다.

행동적 측면에서 애착 체계는 위협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유아가 양육자를 가까이 하여 결속을 맺고 근접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와 관련된다. 유아는 새롭고 낯선 환경에 처하면, 양육자와 가까이 있으려고 하거나 환경의 친숙성을 유지하려고 함으로서 긴장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양육자로부터 떨어져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신기한 자극을 추구하며 정보 - 추구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아는 이러한 역동적인 동기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기화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는 양육자 또는 애착 인물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반응들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자기 자신과 애착인물에 대한 내적 표상들을 형성해 나간다. 즉, 유아가 환경에 대한 탐색활동을 할 때, 양육자 또는 애착인물이 유아의 보호받으려는 욕구와 독립적으로 탐색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온정적이며 일관적으로 반응해준다면, 유아는 자신에 대하여 가치가 있고 유능하며, 타인에 대하여 따뜻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내적 표상 또는 내적 작동모델을 발전시키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유아의 탐색적 시도에 대해 거부적

인 태도를 보이고, 편안함과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조차 빈번하게 거부하며 차갑게 대한다면, 유아는 자신에 대해 무가치하고, 무능하며, 타인에 대하여 차갑고 신뢰할 만 하지 못하다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하기 쉬울 것이다(Bretherton, 1992). 이와 같이 자기 및 타인(또는 애착인물)에 대하여 긍정적 내적 작동모델을 지닌 개인과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지닌 개인들 간에는 정신건강상의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높는데, Bowlby(1973)는 자신과 애착 인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으면,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지난 10 여 년 동안 정신장애와 애착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Cicchetti & Greenberg, 1991). 예컨대 반응성 애착장애(Zeanah, 1996), 학대(Cicchetti & Barnett, 1991; Lynch & Cicchetti, 1991), 섭식장애(Cole-Detke & Kobak, 1996) 적대적 반항장애(Greenberg, Speltz, & Deklyen, 1993) 및 우울증(Cummings & Cicchetti, 1990; Sund, & Wichstrøm, 2002)과 애착유형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우울증과 관련하여, 애착이론은 인지모델과 대인관계 모델을 통합하는 모델로서 적용될 정도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4; Sander, 2001).

애착이론을 우울증을 이해하는 모델중의 하나로 적용하는 이유는 애착이론에서 제안하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라는 인지적 개념(Bowlby, 1980; Priel & Shamai, 1995)과 관련 있다. Bowlby(1973)는 개인이 양육자와의 관계경험들을 내재화하면서,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타인에 대하여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들에 관하여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고 가정했다. 다시 말해서, 내적 작동모델이란 개인이 대인관계상의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도식 또는 인지적 표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Berman & Spurling, 1994; Bowlby, 1980), 이것이 개인 자신에 대한 지각과 외부세계에 대한 반응유형에 영향을 미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이러한 관점은 우울증 발생 및 유지와 관련된 심리학적 병인론인 인지이론과 대인관계모델과 관련된다. 우울증의 인지치료의 대표적 연구자인 Beck(1979)은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인지양상으로서 부정적인 인지삼제(cognitive triad) 또는 우울소인 인지유형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인지 양식은 인생 초기 가정 환경내의 경험을 통해서 발전된다고 가정하였다. Beck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타인 및 외부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 신념(또는 인지도식)을 지닌다. 인지이론의 관점에서는 특정한 부정적 생활사건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한 다기 보다는 그 생활사건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지도식이 활성화되면 정서적으로 우울해진다고 본다. 따라서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 인지도식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울 소인적 인지 또는 부정적 인지도식들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Beck(1979)은 가족 환경내의 초기 경험이 우울과 관련된 인지 양상을 발전시킨다고 가정했다. Gotlib과 Hammen(1992)은 초기 아동기 경험, 예컨대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역기능적인 자기 및 타인에 대한 도식을 발전시키는데 관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인지 이론가들은 우울 인지 및 우울 증상 발생의 원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발달적 관점(Hammen & Rudolph, 1996)과 가족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Kaslow,

Stark, Printz Livingston, & Tsai, 1990)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우울 소인적 인지유형을 이끄는 것은 부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Cummings & Cicchetti, 1990). 따라서 애착 유형에 따라 상이한 자기 및 타인에 대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울증의 대인관계모델은 우울증의 발생보다는 유지와 관련된 기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지지나 사회적 강화를 받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울증상이 악화된다고 본다(Carnelley, 1994). 여기에는 대인관계 자체의 역기능과 함께 인지적 역기능도 관여된다. Murray, Rose, Bellavia, Holmes와 Kusche(2002)의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에 대하여 민감하게 지각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한다. Roberts, Gotlib과 Kassel(1996)은 우울의 재발과 관련 높은 대인관계상의 부정적인 인지는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는 신념을 포함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우울증의 재발은 가족의 비난과 관련 있으며, 가족 갈등의 수준이 낮고, 전반적으로 가족의 기능이 긍정적이면 회복가능성이 높다(Roberts et al, 1996).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연구자들은 우울의 취약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울과 관련된 인지과정과 대인과정을 통합하는 모델의 하나로서 애착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애착이론으로 정신병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 대개 애착 유형은 대개 3 범주 또는 4 범주로 분류된다. Ainsworth(1978)는 일련의 분리 및 재결합 계열로 구성된 실험실 상황에서 유아와 엄마가 보이는 반응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애착유형을 안정, 불안-양가, 및 회피 3가지로

분류하였다. 후에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자기보고측정치를 가지고 성인의 애착 유형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Kobak과 Sceery(1988)는 애착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른 개인의 자기 및 타인에 대한 표상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안정적인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지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회피적인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으나, 타인에 대하여 비지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착적 또는 불안-양가적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지만, 타인을 지지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Bartholomew(1990)는 자기보고 질문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 고통을 느끼면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에서도 불편감을 경험하는 개인들을 확인하고, 3가지 범주로는 성인 회피 애착유형의 질적인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그녀는 Bowlby의 내적 작동모델에 입각하여, 개인은 양육자와의 애착경험을 통해서 자기상에 대한 태도(자기 모델; Self Model)와 타인 상에 대한 태도(타인 모델; Other Model)를 내재화하며, 자기상과 타인상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교차함에 따라 4가지 애착 유형이 존재한다고 제안했다: 안정형(secure), 집착형(preoccupied), 무시형(d dismissing), 및 공포형(fearful).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반구조화된 면접과 자기보고 측정치를 통해서 4가지 애착 유형의 자기 개념과 대인관계 기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4가지 애착 유형의 개인들이 자기상과 타인 상의 2가지 차원이 긍정성 및

부정성의 2수준에서 차별적인 특징을 보임으로서, 4범주 모델을 지지하였다. 각 애착 유형의 자기 개념과 대인관계 기능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 안정형(Secure: 자기 상 과 타인 상 모두가 긍정적임); 자기 가치감이 있으며 타인을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것으로 지각한다.
- 집착형(Preoccupied: 자기상은 부정적이나 타인 상이 긍정적임);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결여되어 있으나, 타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따라서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수용 받으려고 애쓰는 경향을 보인다.
- 무시형(Dismissing: 자기상은 긍정적이나 타인 상이 부정적임); 자신에 대한 가치감은 있으나 타인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것은 관계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따라서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 공포형(Fearful: 자기상과 타인 상 모두가 부정적임)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과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인식과 함께 타인도 자신에게 지지적이지 않으며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한다.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이유는 거부당할 것을 예견하기 때문이다.

		자기 모델	
		긍정성	부정성
타인 모델	긍정성	안정형 (Secure)	집착형 (Preoccupied)
	부정성	무시형 (Dismissing)	공포형 (Fearful)

그림 1.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애착모델

4가지 범주로 애착 유형을 분류하여 정신병리, 특히 우울증과의 관계성을 탐색하고자 할 때, 4가지 범주가 3가지 범주의 분류보다는 우울증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애착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애착 유형과 우울증과의 관계성을 탐색하는 연구들에서는 특정한 특정 애착 유형보다는 안정형 이외의 나머지 애착유형을 불안정한 애착 유형으로 명명하여 불안정한 애착을 우울발생의 위험요인이라 하며 다소 포괄적으로 제안하는 경향이 있다(Sund & Wichstrøm, 2002; Kenny, Lomax, Brabeck, & Fife, 1998; Papini, Roggmann, & Anderson, 1992 참조).

한편, 4가지 범주로 애착을 분류한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를테면, 집착형 애착유형이 우울발생에 취약한 유형으로 제안되거나(Rosentstein & Horowitz, 1996; Cole-Detke & Kobak, 1996), 공포형과 집착형 모두가 우울과 관련된다고 제안하는 연구결과도 있다(Carnelley et al., 1994; Martin, 2001; 김은정, 권정혜, 1998). 따라서 애착유형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우울증과의 관계성을 탐색하는 것이 질적인 정보의 손실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보다 최근에는 우울증의 인지이론과 애착이론을 통합하는 입장에서 부정적 인지가 애착과 우울을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경험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가 다소 일관적이지 못하다. Martin(2001)은 부정적 인지가 애착유형과 우울수준을 매개하며, 특히 공포형 애착유형이 가장 부정적인 인지를 나타내며 우울수준도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이론과 애착이론이 수렴될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ander(2001)

는 우울한 인지도식과 애착유형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데 실패했고, 우울증상과 애착유형간의 관계성도 찾을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론이 우울증의 인지이론과 통합될 가능성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을 우울의 인지적 취약성의 발달적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로 상정하고 애착 유형에 따라 부정적 인지적 왜곡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우울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애착 유형의 기저에는 자기상과 타인 상의 2가지 차원이 존재하며 그것이 긍정성 및 부정성의 2가지 수준으로 교차하여 총 4가지 애착 유형으로 분류에서 교차한다고 가정하는 Bartholomew의 자기 및 타인 모델에 입각하여 애착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다. 그런 다음 각 애착 유형의 부정적 인지 왜곡을 탐색하는데, Beck이 언급한 자기, 타인 및 외부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고 우울수준에서의 차이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포형 애착 집단(자기상 부정적, 타인상 부정적)은 안정형 애착 집단(자기상 긍정적, 타인상 긍정적)보다 자기, 타인 및 외부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우울수준도 높은 것이다.

둘째, 집착형 애착 집단(자기상 부정적, 타인상 긍정적)은 무시형 애착 집단(자기상 긍정적, 타인상 부정적)에 비해 자기와 관련하여 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지만, 타인 및 외부세계에 대하여 덜 부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셋째, 부정적인 인지왜곡이 심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주대학교 인문 및 사회과학 학부와 자연과학 학부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일부 항목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6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의 범위는 18세~ 28세였고(중앙치; 21세), 남자는 134명, 여자 135명이었다.

측정 도구

성인 애착 유형의 분류

Griffin과 Bartholomew(1994a)가 제작한 관계유형 질문지(RSQ; Relational style Questionnaire)를 2명의 임상심리전문가가 번안하여 사용했다(교신저자를 통해 제공가능 함). 이 질문지는 4가지 애착유형에 대한 진술문으로 구성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관계 질문지(Relational Questionnaire: RQ), Hazan과 Shaver(1987), Griffin과 Bartholomew(1994a)의 애착 측정(Attachment measure), 및 Collins와 Read (1990)의 성인 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를 참고로 하여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애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다.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애착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다; 안정형, 공포형, 집착형 및 무시형. 각 하

위척도에 해당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역)은 역채점을 의미한다.

안정형 [문항: 3, 9(역), 10, 15, 28(역)]

공포형 [문항: 1,5, 12, 24]

집착형 [문항: 6(역), 8, 16, 25]

무시형 [문항: 2, 6, 19, 22, 26]

Bartholomew는 자기 상(self image)과 타인 상(other image)의 2가지 차원이 긍정성 및 부정성의 2 수준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총 4가지 선형조합이 생성된다고 제안했다. RSQ에서 두 가지 기본적 차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저자들은 자기모델과 타인 모델이 자기 개념측정치들과 대인관계 긍정적인 지향성 측정치들과 수렴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Griffin, & Bartholomew, 1994b). Griffin과 Bartholomew(1994a)는 내적 합치도의 범위를 $\alpha=.41$ 에서 $\alpha=.70$ 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형의 경우 $\alpha=.63$, 공포형의 경우 $\alpha=.59$, 집착형의 경우 $\alpha=.41$, 및 무시형의 경우 $\alpha=.50$ 에 해당되었다.

부정적 인지 왜곡

Beckham, Leber, Watkins, Boyer와 Cook(1986)은 우울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지 삼제, 즉 자기, 타인 및 외부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한 인지삼제 질문지(Cognitive Triad Inventory; CTI)를 제작하였다. 이것을 2명의 임상심리전문가가 번안하여 사용했다(교신저자를 통해 제공가능 함).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정한다. 이 질문지에는 3가지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견해 척도,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척도, 및 미래에 대한 견해척도로 구성된다. 이 질문지에서 높은 점수는 부정적

표 1. 피험자 특성

	남자(n=133)	여자(n=132)	전체(n=265)
연령	22.9(SD=2.6)	20.3(SD=1.5)	21.6(SD=2.5)

인 인지왜곡을, 낮은 점수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낸다(Beckham et al., 1986). 다음은 각 하위 척도에 해당되는 문항들이다.

- 자신에 대한 견해 (문항: -5, -10, -13, +17, -21, +25, -29, +31, +33, -35)
- 타인 및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문항: +3, +8, +12, -18, +20, -23, +24, -27, -30, -34)
- 미래에 대한 견해 (문항: +6, +9, +11, -15, -16, -19, -26, +28, -32, +36).

Beckham et al.(1986)은 자신에 대한 견해, 타인에 대한 견해, 및 미래에 대한 견해 척도의 내적 합치도를 각각 .91, .81 및 .93으로 보고했다. 또한 BDI와의 CTI간의 .77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각각 .87, .82, 및 .86이었고,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2이었다.

우울수준의 측정

우울수준은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1967)로 측정했다. 이 질문지는 임상적인 우울증상을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후군 등 총 21개 영역을 포괄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우울척도를 사용했다. 이 질문지는 총 21문항으로 4점 척도이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BDI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자료 분석

애착 유형의 분류는 Griffin과 Batholomew (1994b)의 제안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하위척도를 그 개인의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개인의 하위척도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개인의 4가지 하위척도 합산점수를 각 하위척도에 해당되는 문항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하였다. 그런 다음,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개인의 애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최고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4가지 하위척도의 평균값이 안정 3.6, 공포 2.0, 집착 3.0 및 무시 3.4인 경우, 그 개인은 안정척도에서 최고점을 보였기 때문에 안정형으로 분류되었다. 안정, 공포, 집착, 및 무시 하위척도별 각각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3.32, 2.63, 3.12 및 3.59.

본 연구에서 특정애착 유형으로 분류되지 못한 피험자는 총 27명에 해당되었다. 피험자들의 성별에 따른 애착 유형별 분포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안정형 애착은 36.6%, 공포형 애착은 7.6%, 집착형 애착은 17.2%, 및 무시형 애착은 38.7%에 해당되었다. 성별에 따른 애착 유형의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표 2. 성별 애착유형분포(n=238)

	안정형(Secure)	공포형(Fearful)	집착형(Preoccupied)	무시형(Dismissing)
남	44.0%(n=51)	4.3%(n=5)	16.4%(n=19)	35.3%(n=41)
녀	29.5%(n=36)	10.7%(n=13)	18.0%(n=22)	41.8%(n=51)
전체	36.6%(n=87)	7.6%(n=18)	17.2%(n=41)	38.7%(n=92)

미하지는 않았다($\chi^2 = 7.302, df=3, p=.06$).

자료의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울 수준과 우울 인지삼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4 가지 애착유형에 따라 인지삼제 및 우울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정형 대 공포형의 인지삼제의 특성과 집착형 대 무시형의 인지삼제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계획된 비교 (Planned comparison)를 수행하였다.

결 과

우울인지삼제와 우울수준간의 상관

자기, 타인 및 외부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

한 부정적인 견해가 우울수준과 관련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CTI의 하위척도들과 BDI에 대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CTI의 3가지 하위척도 모두는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자신에 대한 견해척도와 우울의 경우는 $r=.58, p<.01$,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척도와 우울의 경우는 $r=.59, p<.01$, 미래에 대한 견해 척도와 우울의 경우 $r=.47, p<.01$, 및 CTI 총점과 우울의 경우는 $r=.60, p<.01$ 이었다. 또한 CTI는 하위척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자신에 대한 견해와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간에 $r=.75$ 의 상관을 보였고 자신과 미래에 대한 견해 간에 $r=.75$, 및 외부세계와 미래에 대한 견해 간에 $r=.74$ 의 상관을 보였다. CTI에서 높은 점수는

표 3. 인지삼제(CTI)와 우울수준(BDI)간의 상관

	BDI	자신에 대한 견해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미래에 대한 견해
자신에 대한 견해	.58*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59*	.75*		
미래에 대한 견해	.47*	.75*	.74*	
CTI 총점	.60*	.92*	.91*	.91*

* $p<.05$ 수준

표 4. 애착 유형별 CTI 와 BDI의 평균

변인	안정형(n=87)	공포형(n=18)	집착형(n=41)	무시형(n=92)
자기에 대한 견해	22.2(SD=7.5)	29.5(SD=10.0)	27.8(SD=8.7)	23.6(SD=7.7)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26.1(SD=6.5)	35.9(SD=10.2)	30.1(SD=7.3)	27.0(SD=6.8)
미래에 대한 견해	23.7(SD=7.1)	26.5(SD=9.0)	27.4(SD=8.6)	23.4(SD=7.5)
CTI 총점	71.9(SD=18.7)	91.9(SD=26.7)	85.3(SD=22.9)	74.1(SD=19.9)
우울수준(BDI)	6.0(SD=5.3)	12.1(SD=7.2)	10.2(SD=7.1)	6.8(SD=6.6)

n= 사례수, (SD)=표준편차

부정적 인지왜곡이 심함을 나타낸다. 인지삼제와 우울수준은 .60의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부정적 인지 왜곡이 심할수록 높은 우울 수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착유형 집단의 CTI 점수와 BDI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4 에 제시하였다.

4가지 애착유형 집단과 자기에 대한 견해,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및 미래에 대한 견해와 우울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4가지 애착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세 가지 인지적 특성과 우울수준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분석 결과는 표 5에, 단변량 분석결과는 표 6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4 가지 애착유형에 따라 우울 인지와 우울수준에서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F(3, 611.46)=4.95, P<.05]

표 6을 보면, 4가지 애착유형의 집단들은

표 5. 애착 유형에 따른 부정적 인지와 우울수준에 대한 다변량 분석

효과	value	F	자유도	p
Wilk's Lambda	.78	4.95	12	.000*

p<.05수준

표 6. 애착유형간 부정적인지와 우울수준에 대한 단변량분석표

종속변인	SS	df	MS	F	p
자기에 대한 견해	1420.52	3	473.51	7.44	.00*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1713.95	3	571.32	11.49	.00*
미래에 대한 견해	583.14	3	194.38	3.31	.02*
CTI 총점	9791.97	3	3263.99	7.67	.00*
BDI	912.24	3	304.08	7.59	.00*

p<.05 수준

모든 종속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기에 대한 견해 [F(3, 611.46)=7.44, p<.05],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F(3, 611.46)=11.49, p<.05], 미래에 대한 견해 [F(3, 611.46)=3.31, p<.05], CTI 총점 [F(3, 611.46)=7.67, p<.05], 및 우울수준 [F(3, 611.46)=7.59, p<.05]

앞서 가설에서 예측했듯이 안정형(자기상 및 타인상이 긍정적인 애착유형)과 공포형(자기상 및 타인상이 부정적인 애착유형)간의 우울인지와 우울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집착형(자기상은 부정적이지만 타인상이 긍정적인 애착유형)과 무시형(자기상은 긍정적이지만 타인상이 부정적인 애착유형)간의 우울인지와 우울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계획된 비교(Planned comparison)를 실시하였다. 계획된 비교를 한 결과, 안정형과 공포형은 자기에 대한 견해[(1, 234)= 12.51, P <.005],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1, 234)= 29.19 P <.005], 미래에 대한 견해[(1, 234)= 2.01, P <.005)] 및 우울수준[(1, 234)= 13.73, P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그림 2, 그림 4 참조).

집착형과 무시형도 자기에 대한 견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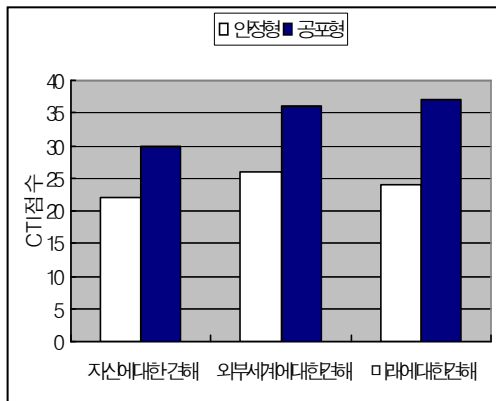


그림 2. 안정형과 공포형의 부정적 인지삼제(CTI) 하위척도별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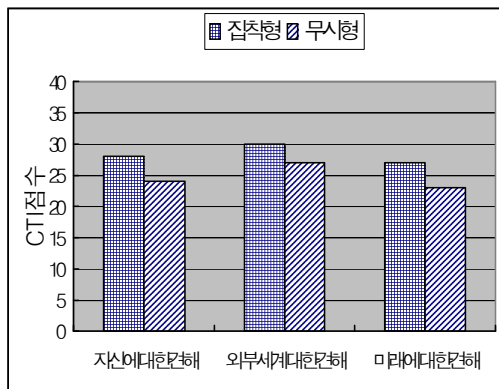


그림 3. 집착형과 무시형의 CTI 하위척도별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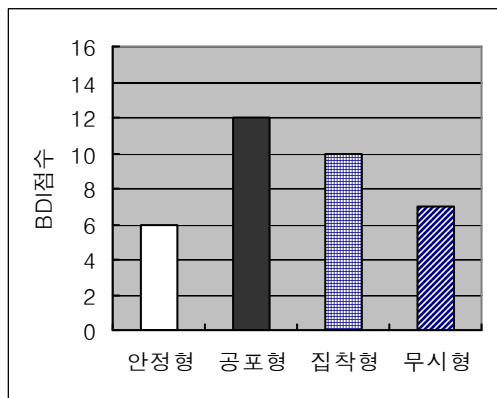


그림 4. 애착유형별 우울(BDI)평균비교

234) = 7.71, $P < .005$],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1, 234) = 5.23, $P < .005$], 미래에 대한 견해 [(1, 234) = 7.69, $P < .005$] 및 우울수준 [(1, 234) = 8.23, $P <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그림 3, 그림 4 참조).

논 의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보이는 애착유형을 30문항짜리 RSQ를 사용하여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무시형 > 안정형 > 집착형 > 공포형 순의 분포를 보였다(각각 38.7%, 36.6%, 17.2%, 및 7.6%). 이와 같은 분포는 애착유형을 4가지 진술문(RQ)으로 분류한 선행연구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서 무시형의 비율이 높고 공포형의 비율이 낮았다 [선행연구예; Martin(2001)의 연구에서 안정형(45.53%), 공포형(20.53%), 집착형(15.18%), 및 무시형(18.5%) 순의 분포. 장휘숙(1997)의 연구에서 안정형(45%), 집착형(30%), 공포형(21%), 및 무시형(16%) 순의 분포]. 이러한 분포의 차이가 사용된 측정도구의 차이인지 또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된 것인지 추후에 표집의 크기를 늘려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우울증에 대한 인지이론과 애착이론을 통합하는 관점에서 4가지 애착 유형에 따라 부정적 인지왜곡 및 우울수준의 차이에서 차이가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가설 1과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즉 공포형 애착 집단(자기상 부정적, 타인상 부정적)이 안정형 애착 집단(자기상 긍정적, 타인상 긍정적)에 비해 자기, 타인 및 외부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왜곡이 심했고, 우

울수준도 높았다. 자기, 타인 및 외부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하면 할수록 우울수준도 높았다. 이는 BDI와 CTI간의 .60의 상관을 보인 점에서도 지지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의 핵심요소는 자기, 타인 및 외부세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 왜곡이라는 Beck(1967)의 주장을 지지해준다. 또한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인지가 우울의 심각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Haaga, Dyck, & Earnest, 1991)과도 일치한다.

전체적인 인지왜곡의 정도와 우울수준은 공포형 > 집착형 > 무시형 > 안정형 순으로 심했다. 특히 공포형과 집착형의 개인들은 임상적으로 경한 수준의 우울에 해당되는 우울 수준을 보였다. 애착 유형별 BDI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되어 있고, 공포형과 집착형의 BDI 평균은 각각, 12.1, 10.2 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포형과 집착형의 개인들이 우울증 발생에 취약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된다(Martin, 2001; Rosentein & Horowitz, 1996; Cole-Detke & Kobak, 1996).

특히 공포형의 개인들이 인지적 왜곡의 정도가 가장 심하고 우울수준도 가장 높게 나타나서, 애착유형 중 공포형이 가장 우울증 발생에 취약한 유형임이 시사된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증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을 연구할 때 3 범주보다는 4 범주로 분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애착유형을 안정, 불안-양가 및 회피 3가지로 분류하면, 회피애착에 공포형 회피와 무시형 회피가 혼합되어, 회피 애착 유형의 친밀한 관계의 질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Bartholomew, 1990). Bartholomew와 Horowitz (1991)의 애착모델에 따르면, 공포형과 무시형은 외현적으로 회피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유사하게 보일 가

능성은 있지만, 자기상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상황에서 우울수준을 경험하는데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질적 차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지지되었다. 공포형은 무시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CTI 자기에 대한 견해 평균; 공포형 29.5(SD=10.0), 무시형 23.6(SD=7.7)], 우울수준도 높았다[BDI 평균; 공포형 12.1(SD=7.2), 무시형 6.8(SD=6.6)].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기술하고 있는 전형적인 애착특징과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포형이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는 것은 자신들이 사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때문일 수 있다. 무시형이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면서도 낮은 우울수준을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외현적으로 대인관계 회피양상을 유사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 개념의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공포형과 무시형 애착 집단을 3 범주 분류에 의해 하나의 회피유형으로 분류하여,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의 발달적 취약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귀중한 정보를 잃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테면, 우울과 관련된 애착유형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예; Sund & Wichstrøm, 2002)에서, 우울에 취약한 특정 애착 유형을 확인하기 보다는 불안정 애착이 우울 발생에 취약요인이라는 식으로 다소 포괄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 애착 유형의 분류와 관련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울증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을 연구할 때 Bartholomew의 자기 및 타인모델에 입각한 4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

로 생각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애착 유형과 부정적 인지 왜곡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상의 연구 결과는 부정적 인지왜곡이 애착 유형과 우울수준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Martin(2001)의 연구결과와 수렴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 이론이 우울증상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된 인지 및 대인관계 이론을 통합하는 모델로서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집착형 애착 집단은 무시형 애착 집단에 비해서 자기와 관련하여 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 및 외부세계와 관련하여서는 덜 부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라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자신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집착형의 애착집단(자기상 부정적, 타인상 긍정적)이 무시형 애착집단(자기상 긍정적, 타인상 부정적)보다 더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각한 바, 자기모델과 관련된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타인 및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집착형이 무시형보다 덜 부정적인 지각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외부세계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따라서 애착유형의 타인 모델, 특히 자기상과 타인상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교차하는 애착유형에서 부분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김은정과 권정혜(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김은정과 권정혜(1998)는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환으로 애착유형과 대인관계 쉼마간의 관련성을 찾고자 했으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그들은 대인관계 쉼마 질문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가 기술하고 있는 집착형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면, 집착형

은 자기 가치감이 결여되어 있으나, 타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수용 받으려고 과도하게 대인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집착형의 개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타인 상의 긍정성 및 부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CTI가 집착형 개인의 특징적인 대인양상과 우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신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훈진, 2000: Candido & Romney, 1990; Fear, Sharp, & Healy, 1996; Kinderman & Bentall, 1997)을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CTI 의 타인 및 외부세계에 대한 견해 하위척도의 문항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호적이며 도움이 된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준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준다 등이다. 이는 주로 타인이 자신에게 얼마나 지지적이고 우호적인지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집착형 개인의 타인 상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평가에 얼마나 의존하고, 타인의 평가를 중요시하는지의 측면이 반영된 문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Bartholomew가 개념적으로 제안한 애착유형의 타인 모델은 다소 복잡한 개념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최근에 우울과 관련 있는 성격 특질중의 하나로서 사회지향성 차원이 제안되고 있다(Sato & McCann, 2000; 이민규, 2000). 사회지향성 차원은 개인이 친밀성, 공감, 이해, 인정, 애정, 및 보호를 포함하여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특질이다. 이런 성향의 개인들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이 매우 중요한데,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은 회피한다고 한다. 김은정과 권정혜(1998)는 집착형이 우울의 하위유형인 사회지향성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애착 유형의 타인모델과 사회지향성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자기 모델과 관련한 결과, 즉 자기상이 부정적인 애착 유형의 집단이 부정적인 인지왜곡과 우울수준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존감이 애착유형과 우울수준을 매개한다는 Robert et al.(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을 3범주로 분류하였을 때 정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신노라와 안창일(2004)은 애착유형에 따른 자기개념을 비교한 결과, 안정형이 양가형 및 회피형 보다 높은 자기개념을 보였으나, 양가형과 회피형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장휘숙(1997)이 제안했던 것처럼, 3범주 모델 보다는 4범주 모델이 보다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애착이론이 우울증 발생 및 유지에 대한 인지이론과 대인관계이론을 통합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애착유형을 Bartholomew의 자기 및 타인 모델에 입각하여 자기상 및 타인상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따라 4 가지로 분류하였고, 그 애착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부정적 인지왜곡을 보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울과 관련된 연구 및 치료에서 4 범주에 근거한 애착유형을 분류한다면, 우울한 사람들의 자기 개념 및 대인관계 불편감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치료적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의 참여자가 대학생 집단이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애착 분포에서 무시형의 분포가 높았던 것을 전체 성인 집단의 결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보다 폭 넓은 연령범위를 고려한 표집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애착 측정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30문항짜리 RSQ를 사용하였다. 4가지 진술문에 근거한 분류보다는 더 진보한 자기보고 질문지이고, 연속형의 점수를 제공하며, RQ과 유의미한 수렴타당도를 갖는 질문지이긴 했으나 (Bartholomew, Horowitz, 1991),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가 낮았던 문제점을 지닌다. Bartholomew가 제안하는 4가지 애착유형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연구들에서 대개 4가지 진술문으로 구성된 RQ를 주로 활용하고 그런 연구들에서는 신뢰도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RSQ의 내적 합치도가 낮긴 하지만, Scharfe와 Bartholomew (in press)는 Bartholomew의 2가지 애착 차원은 8개월 시간간격에 걸쳐 안정성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는바, 2가지 차원에 근거한 4가지 분류는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4가지 애착의 하위유형들을 보다 잘 반영하는 문항들로 첨가 및 수정하여, 애착 유형의 분류 및 측정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제한점을 기초로 하여 추후 연구가 진행된다면, 본 연구를 임상 우울증 집단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임상적으

로 우울한 사람들이 외현적으로 유사한 대인관계상의 불편감이나 철회된 행동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애착유형과 관련한 자기 개념 및 타인 개념에 대한 정보는 우울의 재발방지나 치료적 개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1), 139-153.
- 이민규 (2000). 우울에 대한 성격-사건간의 일치성 가설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247-258.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훈진(2000). 분노표현양식과 편집증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27-438.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애착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장휘숙 (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 123-138.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26-244.
- Beatson, J., & Taryan, S. (2003). Predisposition to depression: the role of attachment.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7, 219-225.
- Beck, A. T. (1979) *Cognitive therapy and emotional disorder*.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ckham, E. E., Leber, W. R. Watkins, J. T., Boyer, J. L., Cook, J. B. (1986).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Beck's cognitive triad: The Cognitive triad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566-567.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and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pp. 1-30)*. New York: Guilford Pres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Basic Books.
- Bretherton. (1992). The Origins of Attachment Theory: John Bowlby and Mary Ainswort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8, No. 5, 759-775.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Carmen, R., & Huffman, L. (1996). Epilogue: Bridging the Gap Between Research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91-294.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6, No. 1, 127-140.
- Cicchetti, D., & Barnett, D. (1991). Attachment organization in maltreated preschool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396-411.
- Cicchetti, D., & Greenberg, M. T. (1991). Special issue: Attachment and development psyc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347-531.
- Cole-Detke, H. E., & Kobak, R. (1996). Attachment processes in eating disorder and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282-290.
- Contreras, J. M., Kerns, K. A., Weimer, B. L., Gentzler, A. L., & Tomich, P. L. (2000). Emotion Regulation as a Mediator of Associations Between Mother-Child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4, No. 1, 111-124.
- Cummings, E. M., & Cicchetti, D. (1990). Toward a transactional model of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p.339-37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Hammen, C., & Rudolph, K.D. (1996). Childhood depression. In E. J. Mash & R.A. Barkley(Eds.). *Child Psychopathology* (pp. 153-195). New York: Guilford Press.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Gotlib, I. H., & Hammen, C. L.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 interpersonal integration..* Chichester, England: Wiley.
- Greenberg, M. T., Speltz, M., & Deklyen, M. (1993). The role of attachment in the early development of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191-214.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a). Model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3, 430-445.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b).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In K. Bartholomew & D. P.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 Relationships* (Vol. 5). London: Jessica Kingsley.
- Haaga, D. A., Dyck, M. J., & Earnest, D. (1991). Empirical status of cognitive theory of depression. *Psychological Bulletin*, 110, 215-236.

- Hazan, C., & Shaver, P. R. (1987). Conceptualizing romantic love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511-524.
- Kaslow, N. J., Stark, K. D., Printz, B., Livingston, R., & Tsai, S. L. (1992). Cognitive triad inventory for children: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to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339-347.
- Kenny, M., Lomax, R., Brabeck, M., & Fife, J. (1998). Longitudinal pathways linking adolescent report of maternal and paternal attachment t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 221-243.
- Kobak, R. R., Sceery, A. (1988). Attachment in adolescence: Working model,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ynch, M., & Cicchetti, D. (1991). Patterns of relatedness on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onnections among multiple representational model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207-226.
- Main, M., Kaplan, K.,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Bretherton, I., & Waters, E.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209), 66-104.
- Main, M. (1996).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on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2. Overview of the Field of Attach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37-243.
- Martin, M. H. (2001). *The roles of attachment and the cognitive triad in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Murray, S. L., Rose, P., Bellavia, G. M., Holmes, J. G., & Kusche, A. G. (2002). When rejection stings: How self-esteem constrains relationship-enhancement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3*, 556-573.
- Papini, D. R., Roggmann, L. A., & Anderson, J. (1992). Early adolesc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to mother emotional-distancing and 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258-275.
- Priel, B., & Shamai, D. (1995). Attachment style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Effects on affect 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 (2), 235-241.
- Roberts, J.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310-320.
- Rosen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No. 2*, 244-253.
- Sander, A. J. B. (2001). *Toward an Integration of Beck's Cognitive Theory and Bowlby's Attachment Theory: Self-Schema and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in Relation to Depressive Sympto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Sato, T., & McCann, D (2000). Sociotropy - autonomy and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6, 66-76.
- Scharfe, E. A. & Bartholomew, K. (in press).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adult attachment patterns. *Personal Relationship*.
- Sund, A. M. & Wichstrøm, L. (2002). Insecure Attachment as a Risk Factor for Future Depressive Symptom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1;12, 1478-1485.
- Troisi, A., & D'Argenio, A.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depression in a clinical sample of young men: the role of insecure attach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in press.
- Zeanah, C. H. (1996). Beyond insecurity: A re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disorders of infa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4, 42-52.
- 1 차원고접수 : 2005. 4. 6.
수정원고접수 : 2005. 6. 10.
최종게재결정 : 2005. 6. 12.

K C I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Negative Cognitive Distortion, and Depression.

Yeon-Ok Chung

Min-Kyu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negative cognitive triad, and depression. Following Bartholomew's Self and Other Model of attachment styles, we classified adult attachment styles into 4 categories, which were secure (32.8%), fearful (6.8%), preoccupied (17.2%), and dismissing (34.7%) attachment styles. We investigated negative cognitive triad and depression by CTI (Cognitive Triad Inventory) and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for the four attachment categories. People with the fearful attachment style (Positivity of Self and Other Model) reported more negative thinking in self, other and future views of CTI and depression than those with the secure attachment style (Negativity of Self and Other Model). Those with preoccupied (Negativity of Self Model and Positivity of Other Model) style showed more negative thinking about self but no negative thinking about other or world than those with the dismissing attachment style (Positive Self Model and Negative Other Model). It suggested that Bartholomew's Self and Other Model of attachment styles was partially supported, particularly in the Self Model.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 Attachment style, Bartholomew's Self and Other Model, Cognitive triad, Depression.